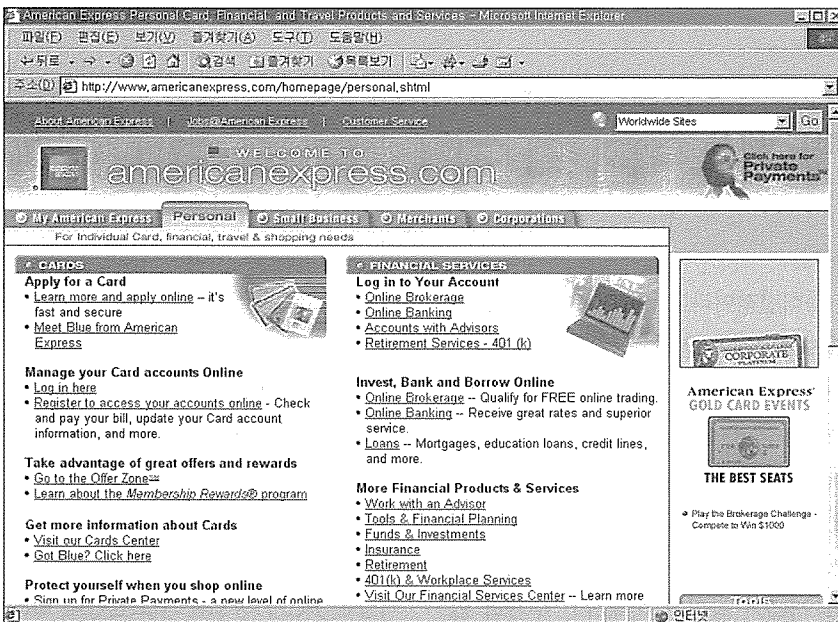


## 온라인 쇼핑의 불안해소 - 1회용 신용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는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신용카드시스템(private

payments)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회용 신용카드는 단 한번의 결제에만 유효한 것으로 이미 사용된 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 중 60~75% 정도가 신용카드 번호 도난을 우려해 단지 구경만 할 뿐 실제 구매는 꺼려한다. 그러나 기존의 보안시스템과는 다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온라인 쇼핑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 서비스는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사용자가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든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는 순간 팝업창이 뜨면서 자동적으로 카드번호와 만료일을 무작위 번호로 채워준다. 사용자는 이때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되고, 이로써 지불이 완료되는 방식이다. 온라인 상점의 주인은 보통의 신용카드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로부터 이 번호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을 지급한다.

## 무선데이터통신기술 블루투스의 가능성

1998년 에릭슨, 노키아, IBM, 도시바, 인텔 등 5개사가 제창한 무선통신기술 블루투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천여 업체가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진행중이다.

블루투스는 컴퓨터, 휴대용 단말기, 이동통신 등 타기종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미래형 통신기술로 각광 받고 있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 SK텔레콤 등 50여개 업체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가 아직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블루투스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장치들간의 통신



이 목적이므로 각종 장치들이 통합될 수 있는 표준정립이 선결과제이지만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블루투스 칩의 가격상승도 장애 요인이다.

초기 20달러로 책정된 칩의 가격이 50~1백달러로 상승하여, 고객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할 것이라 기대하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블루투스보다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 적외선 통신기술(IrDA)이 실패한 것처럼 가격부담은 기술 범용화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루투스 기술이 가진 가능성은 충분하다.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블루투스 기술은 세계 최대규모의 통신회사, 단말기 제조사, 컴퓨터업

체, 소프트웨어 제작사 등 거대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블루투스 기술의 지지자들이 제작한 장비들은 어려움없이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 그것은 노키아 휴대폰으로 3Com PDA와 통신하고, 캠코더 화면을 PC에서 무선전송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컴퓨터업계의 특허소송 국내업체도 나서

지난 9월 12일 미국 램버스사는 현대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램버스사는 현대전자가 생산하는 SD램과 DDRSD램 제품이 자사의 미국 및 유럽 특허를 침해했다면 D램 제품 생산은 물론 미국 및 유럽시장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현대전자가 램버스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맞소송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컴퓨터업계 특허소송의 한 예에 불과

하다.

특허전쟁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기술보호정책은 연간 수억달러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 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해당부품의 수출관료 확보, 전략적 제휴의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전자정보통신 기술이 세계표준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제까지 수세적 입장에 몰려왔던 국내업체도 특허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대만과 일본의 12개 노트북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전원절감기술을 포함하여 12개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대만 노트북컴퓨터 생산업체인 컴펠사는 삼성전자와 특허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조만간 협상단을 국내 파견할 계획이며, 삼성전자는 매출대비 3% 안에서 로열티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도 9월 초 미 연방법원에 미국과 대만의 5개 PC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술은 PC가 정보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PCI 버스 등의 특허기술로 LG전자는 세계 30여개 PC업체가 이를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하고, 기술사용에 대한 로열티 협상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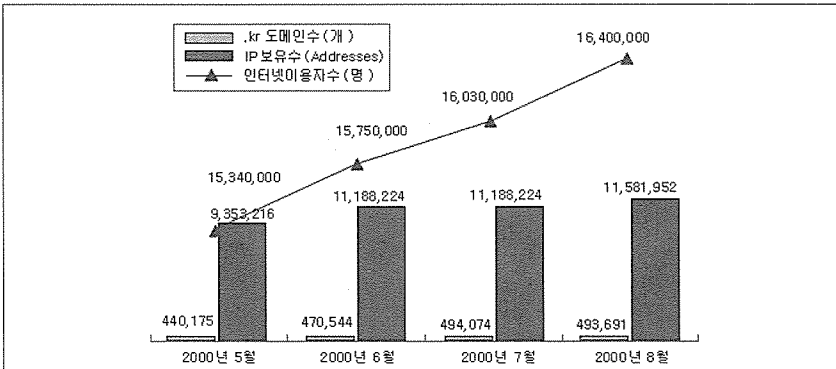
## 국내 인터넷 이용자 1천6백만명 넘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 6월 1천5백75만명, 7월 1천6백3만명에서 8월말 현재 1천6백40만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말 1천만명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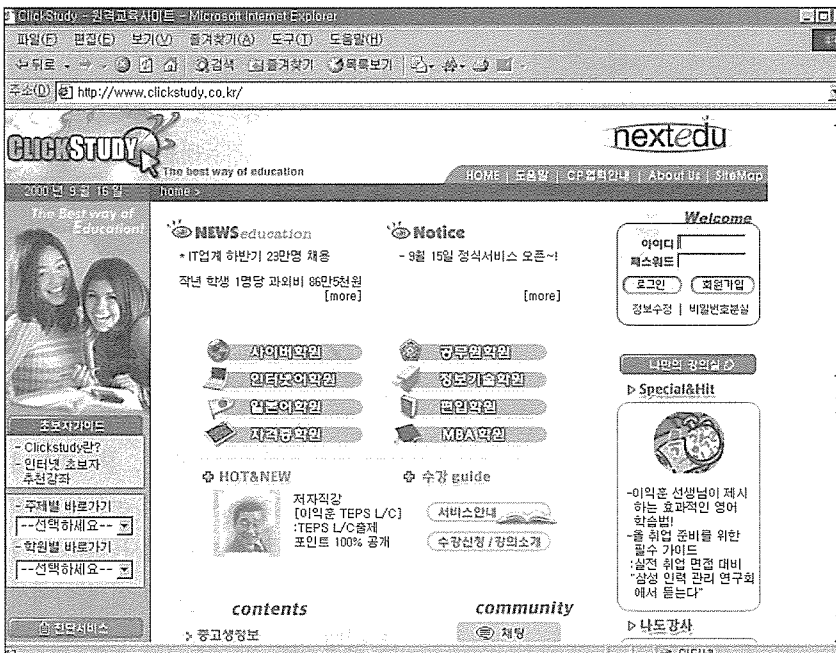
또한 인터넷 전용선 가입 기관수는 7월 말 6만5천7백29개에서 8월 말 6만8천3백65개로 늘어났고, 개인용 고속인터넷 이용자는 초고속인터넷

(ADSL) 가입자 1백22만4천1백13명,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61만4천2백73명, 종합정보통신망(ISDN)가입자 17만6천8백25명으로 총 2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kr 도메인 등록수는 7월 말 49만4천74개에서 8월말 49만3천6백91개로 나타나 kr 도메인 등록 이후 처



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작년 kr 도메인 유료화 시행 후 지난 8월부터 등록유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도메인에 대해 삭제처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삭제된 도메인의 약 73%를 pe.kr(개인도메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수익모델의 최전선 - 사이버 교육시장을 잡아라



닷컴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잠재력과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사이버교육사업이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이비즈그룹의 분석에 의하면 국내 사이버교육 시장규모는 2000년에 5백억원, 오는 2002년에는 3조~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기업교육시

장규모의 신장과 더불어 B2B 사이버 교육 시장도 2000년 1천1백50억원, 2003년에는 8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교육시장에서 사이버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6%에서 2003년 27.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사이버 교육시장에는 PC통신업체

와 포털업체가 회원수를 무기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기존 오프라인의 확고한 기반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관련 기관과 제휴함으로써 사이버 교육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96년부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온 유니텔은 넥스트 에듀정보통신과 공동으로 클릭스터디를 오픈하고 연말까지 12만명의 유료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한국교총과 함께 '사이버교실'을 운영해온 하이텔은 에듀피아에 차세대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 교육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외에도 나우누리, 천리안, 네띠앙, 다음 등의 포털업체와 웅진출판, YBM 시사영어 등의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각각 사이버 교육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이비즈그룹은 "사이버 교육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기회와 가능성이 많으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콘텐츠와 솔루션의 차별화 뿐 아니라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과 안정된 기술력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①

李 懸 (동아 사이언스 기자)